

민주 “차라리 징계하라” 내부 여진 지속…野에 전방위 압박

野 선회엔 “늦었지만 환영”…宋, 탈당대상자 선당후사 호소

김한정·김희재·오영훈 “탈당 불가” 입장 고수…우상호 ‘침묵’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가 ‘불가’ 답변을 받아 권익위 조사로 선회한 것을 고리로 연일 역공의 고삐를 바짝 죄는 등 국면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의혹으로 자진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등 내부는 여전히 뒤흔돈 분위기가.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서면논평을 내고 “국민의 힘이 감사원 조사 의뢰 해프닝을 하루 만에 주워 담았다”며 “늦었지만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이미 투기 혐의로 특수부 수사를 받고 있다. 보수언론까지 나서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훈수 두는 형국”이라며 “이제라도 정정당당하게 조사받고, 결과 앞에 겸허

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진탈당 권유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조기 수습에 애를 먹고 있다. 출당 조치를 받은 비례대표 의원 2명을 제외하고 자진탈당 대상인 지역구 의원 10명 중 우상호 김한정 오영훈 김희재 의원 4명은 아직 탈당 방침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김한정, 김희재, 오영훈 의원이 탈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강력 반발했다. 우 의원은 당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농지법 의혹에 해명한 후 이틀째 침묵중이다. 우 의원 측 관계자는 “당에 소명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만 했다.

김한정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야당 압박을 불쏘시개, 희생양 비슷하게 몰렸다”며 “대한민국이 잉카제국인가. 제물 바치고 제사 지내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기자회견에 나서 “탈당할 이유가 없다. 30년 지켜온 당이다. 내로남불(이라고)? 불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맨스도 아니다”, “국회의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인권이 있다”고 항변하며 울먹였다.

김희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1세기판 드레퓀스 사건이 용납되는 안 된다”며 “결코 탈당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영의신익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오영훈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지도부를 향해 “오려려 징계 절차를 밟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소명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맞섰다.

비례대표로 출당 조치를 받은 양이원영 의원은 당에서 전달받은 권익위 조사 결과지에 빨간색 친필로 빼곡히 밑줄을 치고 반박 내용을 정리, 이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양 의원은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해 가치가 제로(0)인 토지를 구매한 어머니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면, 저는 연좌제로 처벌받아 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분권 속도감 있게 추진…지방소비세율 조정 검토”

민주, 국회서 시도지사 간담회
김영록지사 “규특 재원 5년 보전”
이용섭시장 ‘학동 사고’로 불참
이재명·양승조 재난지원금 신경전

을 제감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적인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법제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2단계 재정분권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방소비세율 조정을 통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등 재정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예산 민원을 쏟아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면 지급을 하다보니 지급받지 못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공간 재정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지방 재정분권이 중요이 커지고 있다”며 “2차 재정분권 추진 논의와 함께 1차 재정분권의 문제점인 규특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도교통부가 올린 광역버

스 예산 50% 부담안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 지방-중앙정부 합의를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반대한 것”이라며 “약속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준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예산을 전액 확보했는데, 국회법이 개정되면 안 돼 집행을 못 하고 있다”며 “6월 임시회에 처리되지 않으면 정기국회에 대선정국에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 꼭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의료원 건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송 대표가 “잘 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권주자간 의견이 엇갈리며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과감한 전국민 상대 지원금 지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보편적 지원금 편성에 힘을 실었지만, 양승조 충남지사는 “공공기관이나 삼성 전자, LG전자 다니는 분들이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적절한가”라고 반문을 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가 폭력에 상처입은 분 응어리 풀어드려야”

김부겸 총리 6·10항쟁 기념식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오랜 세월을 참고 견디며 완전한 명예회복의 날만을 기다린 분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이제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제34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죽음들이 있다. 아직도 국가 폭력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고(故) 계훈제 선생, 김근태 전 의원, 강경태 열사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이날 정부 포상을 받은 유공자 29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뜨거웠던 6월의 정신은 촛불로 계승돼 역사를 전진시켰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의 위기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빛을 발하며 전 세계의 귀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독재와 불의에 맞서 싸운 불굴의 용기는 이웃을 향한 연대와 사랑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향한 깊은 애정과 넉넉한 포용 속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은 길을 찾는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새로 세워지는 민주인권기념관 착공식을 겸해 열렸다.

김 총리는 “민주인권기념관은 국민 누구나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민주화운동의 산 교육장이 돼야 한다”며 “정부 모든 부처가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여야,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국방부 질타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여야는 10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한목소리로 국방부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단순 사망사건 서면보고를 받고, 이튿날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성추행 사건이 관련됐다는 유선보고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공군에서는 이미 성범죄 관련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송기현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국방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공군에서 이 정도 성추행은 그만큼 흔한 것이냐, 혹은 성추행이라는 범죄를 공군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보고체계를 어긴 사람들이 군의 근본 질서를 훼손한 사람들이기에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서 장관이 “(보고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 삼으며 “차이가 아니라 허위보고 아니냐. 그런 답변에서 장관의 인식이 드러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관홍 의원은 “지침상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인 중대 사고는 최단 시간 내에 세부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 사실을 국방부가 숨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수진 의원은 “군은 체계가 생명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군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고 가세했다.

서 장관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수사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의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저는 최선을 다해 후속조치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부동산 직거래 [토지·건물·임야] 매매·임대

-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190㎡, 트리나무 15년생 105주외 7종(소나무, 백일홍, 목련, 벚나무, 함박꽃나무, 산수유, 은행나무) 총 1,810주 광주간 25분, 신실국도4차선 근접, 전원주택, 펜션, 물치장, 다목적 사용자, 조경수 포함 ㎡ 8만원
- 2 상가건물**
1)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도로 사거리코너 점포8칸, 대238㎡ 연257.8㎡ 주변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중 문화전당 연계 집중개발 투자 최상 매9억9천만원 보1천6백 월2백만원 상업지역
2) 광주 북, 오치동, 4층 대384㎡ 연998㎡ 사거리코너 요지 1층 점포6칸 매16억 5천만원 보2억 월6백6십만원
- 3 전원주택, 가든, 펜션 용지**
1)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로수길 70m점 계획관리지역 전·담 4,363㎡ 덕진산자락 남향 경관수려 ㎡14만원
2) 화순 북면 옥리, 금포온천 정문 입구 도로점 계획관리지역 전531㎡ 매㎡18만원
-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용지(주거2종) 분할 가**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도로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시장 근접, 교통요지 담4,220㎡(1,276평) 매㎡ 7십만 ※ 분할매매가
- 5 임야(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등 포함 7만6천㎡ 광주간45분 4차선국도근접 완도간 고속도로 2023년 완공시 영암 IC 300m 지점 이용, 광주간25분 소요, 마을변방 편백 휴양림 1만주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대형차 출입기 귀촌자 최상 ㎡당 6천원 (매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20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5,810㎡(전포화) 지식강 바라봄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적합 매㎡4만원 (매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한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적지 현직직장 맨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2만원 (매매)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25분, 농림지역 도로점 62,740㎡ 휴양림 적용 다수 자생 생약재배, 캠프장, 농가주택가 ㎡5천원 (매매)
- 6 건축물 임대(상가, 투룸)**
1) 사무실용 기타(현 마트)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근접, 4차선 대로변 7건물 중 1층 135㎡ 내부깨끗 대형주차장(부설·참고·화장실) 보증금2천만원 월110만원
2) 광주 동, 대인동시장 내 점포 아시안 주도로, 사거리코너 11㎡(약3평) 전시장, 먹거리, 건물용 기타 다목적 사용자, 보3백 월30만원
3) 투룸임대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양동시장 근접 3층 52㎡ 풀옵션 정남향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대형주차장 보2백만원 월30만원 즉시 입주

※ 부동산 직거래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88-8 **H. 010-3612-9262**

상가매매 (상무) (지구)

1) 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 8천만원**

2)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2천만원)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휴룸, 모든 업종 가능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010-6670-9800

장성토지 (분양) (매매)

광주에서 **20분(도로점)**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1) 100평 → 8천
2) 150평 → 1억1천
3) 300평 → 2억

총 1,778평 → 9억(용 4억 가능)

(주택, 주말농장, 창고, 투자 적합)

062-382-5500